백제불교 정수 '내포'에 꽃피우다

충남역사문화硏 '내포불교이야기' 발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내포(內浦)의 사전적 의미는 '바다나 호수가 육지 안으로 휘어 들어간 곳'을 의미하지만, 한국에서는 특정지역을 뜻한다. 바로 충청남도 서쪽 지역 일대로, 행정구역으로는 서산시 · 당진군 · 예산군 · 홍성군 등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삽교천과 가야산 주위에 형성돼 있다.

바닷길과 물길이 만나는 곳, 내포. 이 지역은 삼국시대부터 외국과의 문화교류가 발달했다. 그러다 보니 불교문화 역시 융성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 이견들이 존재하지만, 원효 스님의 해골물 오도처 후보지 중 하나가 내포지역이라는 점은 예로부터 교류 · 교역의 중심지였음을 의미한다.

내포지역에 형성된 불교문화를 망라한 대중 총서가 발간됐다.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은 가야산 · 삽교천 문화권 종합조사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삽교천이 낳고, 가야산이 품은 찬란한 내포불교이야기〉(이하 내포불교이야기)를 최근 발간했다.

가야산 · 삽교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내포지역의 불교 역사와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내포불교이야기〉는 충남도역사문화연구원과 내포문화사업단이 공동으로 기획했다.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소설가이자 〈불교와 문학〉 주간인 유응오 작가(직지사 종무실장)를 대표 집필자로 선정해 불교문화에 대한 폭넓은 전문성을 더했다.

〈내포불교이야기〉는 △고대에서 근대까지 내포불교의 장구한 흐름 △백제의 미소 머금은 내포의 마애불 △불교문화재의 보고 내포의 전통가람 △수많은 설화와 전설을 간직한 내포의 옛 절터 △용화세계 염원한 내포의 미륵 △미륵불 도래 염원한 침향 공양 내포의 매향비 △한국 불교를 이끌어 온 내포의 고승 등 7개의 주제로 스토리텔링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책에서 주목하는 내포지역 불교의 특성은 선진성과 서민적 정서다. 교류가 왕성했던 지역에 자리잡은 불교는 백제 불교문화의 정수를 보여준다. 대표적인 것이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우는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국보 제84호)'이다. 삼존상은 흔하지 않게 눈을 뜬 모습으로 조성됐지만 눈동자를 새기지 않았다. 그럼에도 눈동자가 없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할 만큼 자연스러워서 마애불을 조성한 백제 장인들의 손길이 얼마나 섬세했는지 알 수 있다. 나말여초 선종

서산 · 당진 · 예산 내포지역 內
불교문화 · 역사 · 고승 등 망라
전문 작가 · 학자들 집필 참여
미륵도래 기원 '매향' 조명도

이 중흥을 맞이할 때도 구산선문 중 사세가 가장 컸던 도량이 성주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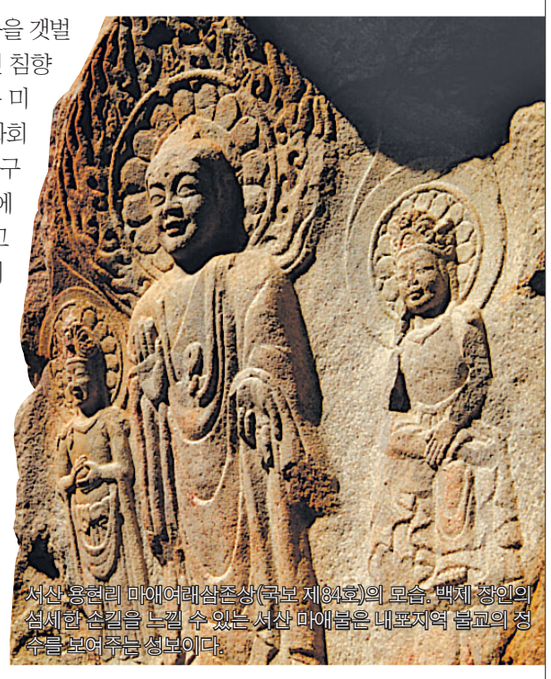
내포불교는 민초들의 삶을 위무한 서민적 특징도 가진다. 이는 내포지역에 유행했던 미륵신앙을 보면 알 수 있다. 옛 민초들은 용화세계를 염원하며 마을 곳곳에 미륵불들을 세웠고, 서산 · 예산 · 당진 · 홍성 지역에만 28개의 미륵불이 있다. 내포지역을 '미륵불의 본향'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고려 말부터 조선 후기까지 이어진 내포지역의 매향(埋香)문화 역시 미륵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는 매향의 의미와 참여자 등을 기록한 매향비를 보면 할 수 있는데 내포지역에는 4개의 매향비가 있다.

향나무, 소나무, 참나무 등을 갯벌에 묻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침향이 된다고 믿었고, 민초들은 미래에 하생할 미륵불의 용화회에 참여해 침향을 공양하고 구원받기를 기원했다. 전국에 매향비가 왜구가 출몰하고 국난이 겹치는 여말선초에 집중된 것으로 보아 내세 구복을 기원한 민중들의 염원을 알 수 있다.

충남도역사문화연구원은 "내포문화권의 역사 · 문화적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주제의 대중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라며 "내포문화권 개발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가치 있는 연구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포불교이야기〉는 충남도서관을 비롯한 도내 주요 도서관에 배포됐으며, 충남도역사문화연구원 홈페이지(www.cihc.or.kr)에서 전자책(E-book)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국보 제84호)의 모습. 백제 장인의 섬세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서산 마애불은 내포지역 불교의 정수를 보여주는 성보이다.

한국불교미술인협회 '붓다의 향기' 展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미술인들이 새로운 협회를 만들고 창립전을 열었다. 한국불교미술인협회(대표 발기인 손연칠)는 4월 22일부터 5월 4일까지 서울 동덕아트갤러리에서 '붓다의 향기' 展을 개최한다.

20대 청년작가부터 중견작가와 원로작가 106명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신장식(국민대 교수)의 '삼매', 류종민(중앙대 명예교수)의 '월인'을 비롯한 회화 조각 등 작품 106점이 전시된다.

'붓다의 향기' 준비위원은 "불교는 인류 문화사에서 세계적인 종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사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전시를 통해 서로 소통함으로써 당면한 시대적 과제들의 보다 나은 발전적 방안들을 모색해 가고자 한다"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창립한 한국불교미술인협회는 회원의 특별초대전과 학술세미나 개최, 회원의 작품 활동과 작품 유통의 활성화 사업, 각 종단이 주관하는 공모전 참여와 발전방안 모색, 전국의 각종 불사 진흥을 위한 제반 사업을 목적으로 창립했다. 박재완 기자

불교 3.1운동 연구, 로드맵 필요

김순석 한국국학연구원 연구원 주장

지난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진행된 다양한 3.1운동 연구의 전체 틀을 한데 아우르는 로드맵과 이를 전승, 홍보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순석 한국국학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최근 〈불교학연구〉 62집에서 '3.1운동기 한국불교계의 역동성과 현재적 반성' 논문을 통해 불교계의 과제를 짚었다.

김 연구원은 "불교계 3.1운동의 전체상을 그려볼 수 있는 밑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며 "한용운과 백용성의 재판기록, 일본 고등경찰 보고서, 전국 만세시위 현황자료, 3.1운동 참여자의 회고록과 연구사 정리논문 등을 기반으로 박사학위 논문이 배출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학계와 교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불교계 독립기념관 건립이나 드라마, 다큐 제작, 유튜브 영상 제작 등을 통해 대중에게도 적극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알려나가야 한다. 특히 청소년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 논문에서 불교3.1운동의 정체성은 평화적 독립운동에 있음을 들고 그 뒷받침으로 1919년 11월 15일 상해에서 발표된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를 들었다. 김 연구원은 "선언서는 국내 대중운동 고취 목적이 아닌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한 세계 외교사절에 조선독립 정당성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용운의 〈조선독립의서〉와 〈대한승려연합선언서〉에도 세계평화 지향의 모습이 나타난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요구한 불교계 3.1운동을 어떻게 현창하고 계승하는지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불교학연구〉 62집은 오대북대신앙 특집 논문으로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의 〈한국 오대산의 특징과 북대신앙의 변화〉, 황인규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의 〈나옹과 오대산 북대〉가 실렸다.

자현 스님은 특집논문에서 "오만진신신앙의 특징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부분은 문제다. 북대신앙의 변화를 구체화하여 한국오대산 연구에 중요한 의의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고려 '육조대사법보단경' 보물 지정

문화재청 지정 공고
사천 백천사 소장

고려시대 제작 · 발간된 〈육조대사법보단경〉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고려 후기 선종(禪宗) 경전인 〈육조대사법보단경〉 1책과 630년 전에 발급된 과거합격증 '최광지 홍패',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1점 등 총 3점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4월 23일 밝혔다.

보물 제2063호로 지정된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은 1책(64장)으로, 1290년(충렬왕 16)년 원나라 선종의 고승 몽산덕이(蒙山德異, 1231~1308)가 편찬한 책을 고려 수선사(修禪社)에서 당시 제10대 조사인 혜감국사 만항(萬恒, 1249~1319)이 받아들여, 1300년(충렬왕 26년) 강화 선원사(禪源寺)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현재 경상남도 사천시 백천사에 소장돼 있다.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육조 혜능의 선사상을 이해하거나 선종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경전이기 때문에


보물 제2063호로 지정된 '육조대사법보단경' 서문.

한국에서는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간행됐다.사천 백천사 소장본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우리나라에 전래된 관련 경전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 간행됐던 '덕이본(德異本)' 계열의 책들과도 판식(板式)의 차이점이 보여 고려시대의 특징을 보여준다. 문화재청은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선종의 핵심사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지침서이자 한국 선종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불경으로 불교사에서도 중요하다"며 "이 중 백천사 소장본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같은 종류의 경전 중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이어 "〈육조대사법보단경〉은 불교학 연구는 물론, 고려시대 말기 목판인쇄문화를 규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 · 서지학적 가치가 높아 보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물 제2062호로 지정된 '최광지 홍패(崔匡之紅牌)'는 고려 말~조선 초에 활동한 문신 최광지(崔匡之)가 1389년(창왕 1년) 문과 '병과 제3인(丙科 第三人, 전체 6등)'으로 급제해 받은 문서로서, 약 630년 전 고려 말에 제작된 매우 희귀한 사료이다. 특히 홍패에는 발급연월일 위에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라는 국새(國璽)가 찍혀 있다.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 항아리'는 17세기 말~18세기 초에 제작됐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중 크기와 기법 면에서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들이 체계적으로 보존 ·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문화재 현장에 'AI 영상분석 드론' 도입된다

문화재 현장에 인공지능(이하 AI) 영상분석기술이 탑재된 드론이 내년부터 상시로 투입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AI 영상분석기술 탑재 드론을 활용한 문화재 안전관리 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으며,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현장에 상용화시키기로 했다"고 4월 23일 밝혔다.

지진이나 산사태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사적과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등 광범위한 지역의 문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힘들고, 관리인력을 상시 배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이같은 이유로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이 일선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관련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난안전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드론기술의 현황을 파악해 문화재 현장 활용방안을 검토했다.

문화재청은 "4차산업시대에 부합하는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풍요와 복덕을 얻게하는 귀한 선물

천수경(千手經) 액자

인쇄물이 아니라 한 자 한 자 정성을 들여 모필로 써서 만든 것입니다.
붉은 비단에 금색원형으로 천수경을 적어 조형미와 더불어 품격까지 느껴져
주지스님 방이나 거실, 사무실 벽에 걸어놓기에 안성맞춤입니다.



· 작품크기 : 가로 45cm × 세로 45cm
· 바닥재질 : 비단(한지로 배접)
· 구입대상 : 스님, 신도님

천수경이란

천수경(千手經)은 관세음보살의 6번화신 중 하나인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을 신앙하는 경전이다. 천수다라니는 특히 티벳과, 네팔, 인도, 파키스탄은 물론 중국에 걸쳐 여러가지 이본(異本)들이 있는데 그 체제와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다라니의 내용도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송되고 있는 천수경은 가범달마(伽梵達摩)역의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을 모태로 한 것인데 우리말로 풀어쓰면 한량없는 손과 눈을 가지신 관세음보살님의 넓고 크고 걸림없는 대자비심을 간직한 큰 다라니경인데 천수다라니를 정성드려 모시거나 수지 독송하고 지키면 시방세계의 모든 불보살이 와서 증명하여 일체업장이 소멸되고 일체 악업과 중죄와 모든 장애를 여의케하며 일체의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증장시키고 이롭고 안락하게 하며 모든 병과 두려움을 없애주고 일체의 귀신이 범접치 못하게 하고 모든일을 성취케하며 구하는 바를 만족케하고 특히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수명이 장수하고 풍요와 복덕을 얻게한다고 한다. 이와같이 천수다라니에는 온갖 공덕이 들어있어 그 대비신력과 위신력의 영험은 한없이 높고 그 신묘함은 불가사의하다고 하여 신묘장구 대다라니라 한다.

문의 055-291-7263, 010-3845-2446 (금액협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00번길 37-15호 도덕정사

제 103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02)741-0495~6